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테슬라코리아 앰배서더가 됐다. (사진=플필 제공)

'머스크도 주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됐다

"함께할 수 있는 일 찾으며 좋은 메시지 전하고파"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김예지(32·임실군청)가 테슬라코리아 앰배서더가 됐다.

김예지 소속사 플필은 지난 1일 "김예지가 국내 최초 테슬라 앰배서더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테슬라가 한국에서 최초로 발탁한 앰배서더로, 이번 파트너십은 스포츠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연결하는 의미있는 활동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파리 올림픽 여자 공기권총 10m 은메달을 딴 김예지는 올림픽 기간 지난 5월 국제사격연맹(ISSF) 바쿠 사격 월드컵 25m 권총 결선 영상이 퍼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무심하게 총을 쏘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한 영화 '존 윅'에 비교됐고, 엑스(X·구 트위터) 소유주이자 테슬라 CEO인 머스크도 "따로 연기할 필요가 없다. 액션 영화에 캐스팅하자"고 찬사를 보냈다.

김예지의 소속사는 "이 언급을 통해 김예지와 테슬라가 인연을 맺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예지는 "사격을 통해 저를 알아봐 주신 테슬라와 함께하게 돼 정말 기쁘다. 테슬라는 혁신적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브랜드라 저와도 잘 맞는 것 같다. 앞으로도 테슬라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며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시스

도내 11월 스포츠 행사 풍성

11월에도 전북 곳곳에서 체육대회(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이 달에도 도내에서 크고 작은 대회가 열렸다. 2일부터 3일까지 익산시 일원에서는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이 펼쳐졌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약 4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게이트볼과 축구, 족구 등 10개 종목에서 경쟁했다.

2일 남원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민속경기대회가 열렸고 도지사배마스터즈수영대회가 3일 전주 완산수영장에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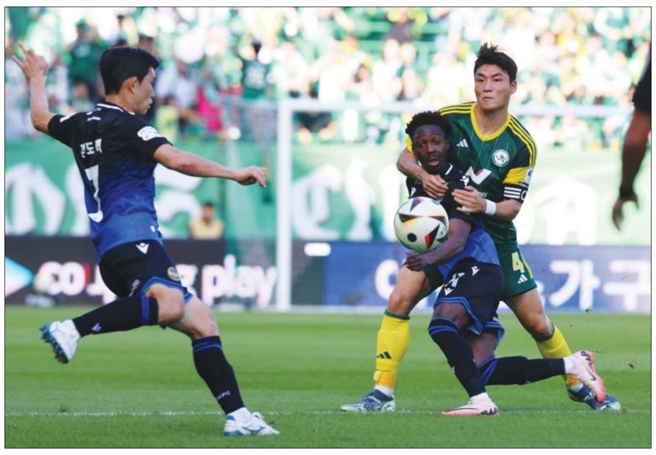
제36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는 7일 시작되고 도지사배국학기공대회와 전북특별자치도빙상대회도 9일 전주에서 열린다.

제54회 도지사기소프트테니스대회는 16일 순창군에서 열린다. 17일에는 김제에서 도지사기전북남여궁도대회가 예정 돼 있다.

도지사배생활체육유도대회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익산에서 펼쳐진다. 24일에는 도지사배클럽대항육상경기대회가 정읍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프로축구 전북·인천, K리그1 하위권 맞대결에서 무승부

전북, 리그 11위 유지


프로축구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의 제르소와 전북현대의 박진섭.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와 인천유나이티드가 벼랑 끝 승부에서 승점 1을 나눠 가졌다.

전북과 인천은 2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파이널B(하위 스플릿) 36라운드에서 0-0으로 비겼다.

이날 무승부로 전북은 승점 38(9승11무16패)로 리그 11위를 유지했다.

승점 1을 추가한 인천도 승점 36(8승12무16패)으로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두 팀의 강등 싸움은 잔여 2경기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인 만큼, 양 팀 감독은 최정예로 팀을 꾸렸다.

전북은 김진규, 문선민, 보아텡, 한국영, 이영재, 홍정호, 박진섭, 김태환 등을 출격시켰다.

이에 맞서는 인천은 무고사, 홍시후, 이명주, 문지환, 김도혁, 정동윤, 오반석 등을 선발로 보냈다.

경기 초반에는 전북이 공격하고, 인천이 막아내는 분위기였다.

이에 인천은 전반 15분 만에 백민규를 빼고 제르소를 투입하면서 더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다.

양 팀 선수들이 거친 몸싸움을 펼치는 장면은 자주 나왔으나, 득점에 가까운 위협적인 상황은 없었다.

전북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변화를 가져갔다.

이영재를 빼고 안드리고를 투입해 선제골을 노렸다.

이후 전북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 후반 10분 김태현이 강한 슈팅을 했지만 골대 옆을 향했다.

후반 11분에는 문선민이 상대 실수를 가로챈 뒤, 안드리고에 연결했다. 이를 받은 안드리고는 슈팅했으나 옆그물을 때렸다.

후반 33분엔 인천에 기회가 왔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명주가 올린 크로스를 전북 수비가 걷어내면서 김도혁에게 흘렀다.

김도혁이 곧장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영점이 정확하지 않았다.

찾아온 기회를 골로 마무리하지 못한 두 팀은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 /뉴시스

태권도의 대중화…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

태권체조 · 격파 · 품새 등 진행… 모델 선발 이벤트도

'제20회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이하 웰빙태권도 축제)'가 지난 2일과 3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개막식에는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과 우석대학교 박노준 총장,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이명철 회장, 전북태권도협회 고봉수 회장 등 내빈을 비롯해 참가선수 등 1천여명이 함께 했다.

서재영 부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이 태권도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 성지 무주를 알리는 데 주력한 공로로 전북일보에서 수여하는 공로패를 받았다.

서재영 부군수는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의 매력은 품새와 겨루기 위주의 대회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경연, 세대를 아우르는 대회, 태권도 대중화에 기여하는 대회라는 것"이라며 "차오르는 자긍심을 기반으로 유감없이 기량을 발휘하고 우정도 쌓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주는 태권도원을 세계태권도 성지로 각인시키는 한편, 국제태권도사관학교(태권도종합수련센터)와 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에 최선을 다하고 태권브이랜드와 태권마을을 조성하는 등 태권도 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라며 "이 모든 여정이 태권도 발전과 태권도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필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초·중·고·대학·일반·장년·시니어부 선수들이 시범(태권체조) 및 격파, 품새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또 시니어부 참가자를 대상으로 태권도인으로서의 품격과 대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모델 선발 이벤트도 진행돼 이목을 끌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익산시장배 지구력 승마대회

'제4회 익산시장배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금강을 배경으로 열렸다.

익산시는 지난 1일 금강변을 따라 펼쳐진 특설경기장과 공공승마장에서 전국 승마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승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익산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익산시승마협회가 주관·주최했다. 사흘 동안 마필 200여두와 선수·관계자 1,000여명이 참가했고, 지구력 대회 외에도 △마장마술경기 △권승경기 △릴레이경기 △허들경기 등 다양한 종목이 약 800회 진행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귀족 스포츠로 여겨지던 승마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승마장 운영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승마인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국 최고의 승마 관광 도시 익산시를 만들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